

<출국 전 준비 과정>

나에게 가장 바쁘기도 하고 가장 설레기도 했던 시간은 미국을 가기 전 ‘준비기간’ 이었다. 또한 준비 기간 중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막막함에 정말 답답했던 적이 많았다. 나의 이 짧은 글이 차후에 CSU 파견자분 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

●출국 전 준비사항

: 각종서류, OT 참석, 비행기표, 비자, 짐싸기, 온라인준비 (메일확인 건강보험가입, 비자인터뷰예약, 수강신청, 집 결정등) 은행계좌, 국제학생증 만들기 등

(학교생활과 동시에 출국준비를 하려면 바쁠 것 이다. (수강신청, 각종서류제출기한이 중간 또는 기말고사기간 직전이다) 또한 교환학생 준비과정은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 해야 한다. 따라서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함께 가는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어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 정보를 서로 공유할 것을 추천한다.)

1. 서류준비

여권, 재정보증인 서류(원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영문)(행정실 제출 외에도 비자신청, 미래에셋 제출등에 쓰이므로 미리 여러 장 준비해놓는 것이 좋다), **DS2019((입학허가서)** 출국 시, 미국에 와서도 다른 나라 여행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특별히 잘 챙기길 바란다.), 비자서류(sevisfee, 인터뷰 예약확인서류, 재정보증인서류)등

2. 비행기티켓

조금이라도 값 싸게 비행기표를 구하길 원한다면 합격 발표 후부터 바로 비행기표를 알아 보아야 한다. 땡처리로 싸게 내놓는 비행기표가 불시에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사이트에 자주 접속해 보기 바란다. 비행기표 값은 경유 or 직항, 왕복 or 편도, 체류기간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게 난다. 또한 왕복티켓일수록, 기간이 짧을수록 가격이 싸고 또한 같은 날짜의 비행기라도 늦게 살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대표적 사이트로는 탑 항공사, 인터파크, 웹투어등이 있다. 또한 굳이 입국날짜를 정하지 않아도 ‘OPEN’ 형태로도 티켓을 살수 있다. (ex) 1년OPEN : 출국날짜를 정하되 입국날짜가 확실하지 않을 때 1년 안에 입국날짜를 정할 수 있는 형태.) 한국에서 Fresno까지 가는 직항비행기는 드물고 다른 나라를 경유하거나, 프레즈노 근처 대도시인 라스베가스나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가는 비행기형태를 많이 볼 수 있다.

★ 경유 티켓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시간 격차를 최소 3 시간 정도 반드시 두길 바란다.

(비행기가 연착 할 수도 있고 출국심사 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행기 출발 전 10 분을 남겨두고 긴 줄을 서서 받을 동동 구르는 승객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7 시간 텀으로 비교적 많은 시간이 남았었지만 덕분에 갑자기 생긴 비상사태를 여유 있게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잠시나마 경유지를 구경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 아래는 2011 년 CSU 파견자의 비행기표가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항공사	경유지	기간	가격	비고
United Airlines	인천-샌프란시스코-프레즈노	6 개월 왕복티켓	약 120 만원	
United Airlines	인천-샌프란시스코-프레즈노	1 년 왕복티켓	약 160 만원(후반)	
United Airlines	인천-샌프란시스코-프레즈노	1 년 왕복티켓	약 230 만원	2-3 주 뒤에 위와 같은 비행기티켓 구입
대한항공	인천-라스베가스-프레즈노	1 년 OPEN	약 240 만원	

3. 비자

합격 발표 후 국제처 에서 주관하는 비자신청관련 OT가 있다. 아무리 CSU에서 입학허가가 나더라도 비자신청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 미국에 갈 수 없으니 OT에 반드시 참석하고 서류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대사관 가기 전에 온라인으로 날짜 예약과 온라인 접수(+수수료지불) 를 하고가야 한다. 서류준비는 국제처 에서 시키는 대로만 준비하면 완벽하다. 비자인터뷰를 위해서는 서울의 미국대사관까지 가야 하는데 같이 가는 사람들과 시간을 맞추어 KTX 동반좌석을 구입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약 30%할인. 코레일SITE에서 구입가능).

(실제로 나의 비자신청에서는 서류 검사 시, 여권과 DS2019 서류 만 요구하였고 인터뷰도 단 2 마디로 간단하게 끝났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반드시 요구서류를 다 챙겨가길 바란다.)

4. 짐싸기

- 수화물규정확인** : 항공사마다 수화물의 무게,크기,개수 규격이 다르다. 비행기티켓 구입 후 해당 항공사 사이트를 가서 규격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 옷** : 대부분 캘리포니아를 연상하면 따뜻한 날씨가 생각날것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프레즈노 1-2월의 날씨는 초가을날씨이고 사막기후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하다. 따라서 **여벌의 긴팔옷, 잠바**를 조금 준비하길 바란다.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니 여름옷은 필수.
 - 변압기&멀티탭** : 변압기(220→110V)필요(문방구에서 500원에 살수있다)
 - 헤어드라이기, 전기밥솥(X)** : 두 가전제품은 전압이 약해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위 두 물건은 필요하다면 미국에 와서 사는데 더 용이하다. (헤어드라이기의 경우, 월마트에서 \$10-12에 살수 있다. 또한 굳이 한국제품을 사용하고 싶으면 **승압기**를 가져와 사용해도 괜찮다.)
 - 웬만한 물건들은 월마트에 가면 한국과 비슷하거나,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개인의 취향에 따라 모든 물건을 싸와도 되고, 미국에 와서 사도 된다.**
 - 인터넷전화** :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과 잦은 통화를 해야 한다면 국제카드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인터넷전화를 가져가길 추천한다. 인터넷전화간 무료통화 집전화, 핸드폰 통화는 시외전화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아래는 내가 준비 했던 목록이다.
- 배게,담요,수건,속옷,반팔티,바지,반바지,겨울잠바1,양말,슬리퍼,운동화,구두,책,필기류,샴푸,비누,린스,트리트먼트,치약,때수건,바디워시,바디로션,화장품,상비약,모자,선글라스,우산,렌즈액,안경,선글라스,가방,재무계산기,헤드셋,컵,변압기,멀티탭,노트북,통장,각종카드,USB,전자사전,MPS,노트북,디카,한국음식(미숫가루,과자,사탕),드라이기,옷걸이,휴대용휴지등등
- ☞와서 새로 산 생필품
- 이불(13\$구입), 세제(3\$) ,풍풍(0.97\$), 목욕바구니(2.5\$), 거울(5\$), 공책(1\$)등->월마트에서 구입.(참고로 여기에 캘리포니아 TAX 약 9%가 붙는다. 따라서 물건을 살 때 목록을 정해서 한꺼번에 사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5. 출국당일날 준비사항

- 챙겨야 할 것** : **여권, DS-2019**, 개인수화물
- 교통편** : 대부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텐데, 인천공항까지 가는 경로는 3가지이다. 자가용, 공항버스(대구의 경우 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공항까지 직행), KTX(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직행열차가 있음.)의 방법이 있다. 또한 탑승 수속전 2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한다.

6. 온라인 준비사항

합격 후부터는 CSU의 코디네이터인 Tatyana로부터 메일로 계속 연락이 오고 가니 메일확인을 자주 하기 바란다. **메일을 통해 학교 사이트 가입, csu메일계정만들기, 수강신청, 건강보험가입(약 550\$_무조건 학교건강보험을 가입 해야함) 하우징 정보, 등록금제출기한(등록금을 CSU에 내고 영남대학에서 나중에 돌려받게 된다.)등의 정보**를 받고 시행 해야 한다. 또한 기숙사 정보, off capus 집정보도 인터넷으로 확인, 예약이 가능하다.

7. 은행계좌

부모님을 통해 생활비를 받는다면 **City은행 국제직불카드**를 만들것을 추천한다. 학교 정문 앞에 seveneleven편의점에서 citybank ATM를 통해 **무료**로 돈을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도 City은행 계좌에 돈을 넣기 때문에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다만 편의점의 ATM기의 **단점**은 통장정리를 할 수 없고 Recipe의 잔액조회가 가끔씩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나는 현재 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한다. Debit/Credit카드를 쓰면 atm에 가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 카드이기 때문에 돈이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의 환율을 적용해 돈이 나중에 나가고 신용카드는 수수료도 붙기 때문에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해서이다. CITY은행 외 다른 은행의 계좌를 만드려면 **VISA/MASTER 카드를** 만들면 되고 미국에 와서 **미국 은행의 카드,계좌**를 만들 수도 있다.

8. 국제학생증

미국에서 간단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술을 살 때, 도서관에서 노트북 이용할 때 등 photoID카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국제 학생증을 사용하면 되고 굳이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면 여권을 사용하면 된다. 학생지원센터에서 만들 수 있고 약간의 돈과 (10000-15000원)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다.

9. FRESNO 공항에서 기숙사까지.

택시를 타면 약 10-15분이면 학교까지 갈수 있다. (학교이름을 California state university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서 대부분 보통 fresno state라고 부른다.) 또한 택시비용은 약 \$30-35사이였다. 또한 자취를 하는 경우에도 거의 학교 근처기 때문에 택시요금과 시간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이희정 : bluejung111@hanmail.net

559-704-0405